

# 한전 “벼락을 잡아라”

## 광주·전남 을 낙뢰 정전 30건...40억 들여 피뢰침 등 설치

지난 4일 새벽 2시12분께 나주시 노안면 일대 전신주에 낙뢰(落雷·벼락)가 내리쳐 35분 동안 전기 공급이 중단, 330가구가 불편을 겪었다. 또 같은 날 새벽 4시경 영암군 삼호읍 일대 낙뢰로 160가구가 27분 동안 정전됐다.

벼락으로 인한 정전 사고가 늘면서 한국전력 전남사업본부가 40억원을 들여 ‘벼락 잡기’에 나섰다. 전신주 꼭대기에서 피뢰침 역할을 하는 ‘직선형’ 지지대(支柱)를 ‘편출형(便出)형’으로 교체하고 있는 것이다.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뻗어있는 ‘직선형’은 좌우 측면에서 내리치는 벼락을 잡아내지 못한다. 반면 ‘편출형’은 한쪽 끝이 90도가량 휘어 좌우 45도 각도에서 치는 벼락도 잡아낸다. 한전 전남본부는 최근 광주·전남 지역 전신주(120만 본)에 설치된 지지대 1천165개를 ‘편출형’(개당 100만원)으로 교체하고 있다.

또 전선이 벼락을 맞아 끊어지지 않도록 일종의 금속 보호막을 씌우는 ‘가공 지선’(架空地線·1km당 200만원) 19.3km를 설치하는 등 2만796km의 전선에 보호막을 입혔다.

이외 ▲벼락방지 시설 접지저항 측정(1만185곳) 및 보강(2천638곳) ▲성능저하 피뢰침 교체(749곳) ▲열 화상 진단장비를 활용한 정밀 진단(4천70곳) 등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광주·전남지역에서 벼락에 의한 정전 사고는 7일 현재 ▲일시정전(5분 이상 전기공급이 끊기는 것) 4건 ▲순간정전(0.2초 이하) 26건 등 모두 30건으로, 이중 8건(일시 2, 순간 6건)이 8월에 발생했다.

지난해의 경우 같은 기간 ▲일시정전 3건 ▲순간정전 30건 등 33건이 벼락에 의한 것이었다.

한전 전남본부 정현준(설비관리팀) 과장은 “전기공급 약관에 따라

정전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나 기업 등이 입는 손실을 정확히 추산할 수 없다”며 “벼락에 의한 정전이 해마다 늘고 있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지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

난해 광주·전남의 낙뢰 일수(日數)는 완도가 21일로 가장 많고 ▲광주 16일 ▲목포 12일 ▲여수 13일 ▲흑산도 15일 등이었다. 전체 낙뢰 횟수는 1만2천여 회로 하루 32.9회꼴이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전 전남사업본부 직원들이 7일 오후 광주시 북구 두암동에서 전신주에 벼락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피뢰침 역할을 하는 ‘편출형 지지대’를 설치하고 있다. /위직림기자 jrvi@kwangju.co.kr

### 이젠 ‘잡(Job)파라치’

#### 불법 직업소개 신고 포상금 50만원

노동부는 8일부터 불법직업소개와 허위구인광고 행위를 신고하면 1회당 최고 50만원(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신고 또는 고발된 불법직업소개소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50만원, 허위 구인광고 행위를 신고하면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법직업소개 신고 대상은 폭행·협박 또는 감금, 정신·신체의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는 방법으로 직업을 소개하거나 근로자를 모집하는 행위 등이며, 성매매 또는 음란한 행위에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연합뉴스

## 국립 사범대 출신 미임용자 820명 내년부터 4년간 특별채용

위험 결정으로 교직에 임용되지 못한 채 전국 10개 교대에 편입해 있는 국립 사범대 출신 교사 미임용자 820명이 2008학년도부터 4년간 특별채용된다. 광주교대에는 4학년 92명, 3학년 2명 등 모두 94명이 편입해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국립사범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이 3일 공포됨에 따라 특별임용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 7일 밝혔다.

이들은 1990년 ‘국립사범대 졸업생 우선 채용’규정에 대한 위험 결정으로 임용되지 못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들로 교대에 편입한 뒤 초등학

교 교사 임용을 요구해 왔다. 특별법 개정안은 이들을 위해 별도의 정원을 책정해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4년간 일반 교원임용 시험에 응시해 채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응시기회는 4년간 3회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연도별 임용 정원을 정한 뒤 다음달 말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연도별 임용 예정 인원을 공고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채용은 미임용자들끼리 치르게 되며 3회의 응시기회에서 모두 탈락할 경우 구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 광주여대 중등특수교육과 개설 인가

광주여대는 최근 호남권 대학 중 처음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중등특수교육과 개설 인가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설 인가는 지난 5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광주여대는 기존 치료 특수교육과를 중등특수교육과로 전환했다. 입학정원은 20명이다.

광주여대는 새로운 학과의 교육과정 편성, 기존 학생들의 수강정정, 신입생 모집계획, 학과운영계획 등을 수립해 가톨릭기초부터 정상적인 학과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개설된 중등특수교육과를 기존 유아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언어치료학과, 상담심리학과 등을 연계해 특수교육 분야를 대학 특성화의 한 축으로 삼을 방침이다.

중등특수교육과 권충훈 학과장은 “새로 제정된 특수교육법은 중학교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6명당, 고등학교의 경우 7명당 1개의 특수학급을 각각 설치토록 해 중등특수교육과 졸업생들이 교육현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 남해 적조 소강... 별 피해 없어

전남 남해안 일대에 발생한 적조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 7일 여수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여수 앞바다 등 남해안에서 예찰된 적조원인 생물 ‘코클로디니움’의 밀도는 m<sup>2</sup>당 최고 600~700개체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코클로디니움 밀도가 m<sup>2</sup>당 300개체 이상이면 적조주의보, 1000개체 이상이면 적조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이날 현재 전남 지역에서는 여수 남면 안도~가막만 해역과 고흥 나로도 동쪽~북해 해역에 소규모 적조 피가 분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양식 어류 폐사를 비롯한 수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조량이 많아지면 적조 발생 범위가 확산하고, 코클로디니움 밀도도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양식 어민들의 지속적인 어장관리가 요구된다.

여수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어제와 오늘 남해안에 비가 내려 적조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일조량이 많아지면 적조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며 어장관리를 철저히 해주도록 당부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를 기해 여수 화정면 개도 서쪽 중간에서 남면 소리도 등대 중간까지의 해역을 대상으로 적조주의보를 발령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적조로 인해 여수 해역에서 참돔·돔돔 등 7만7천 마리의 양식어류가 폐사해 3천7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입추(立秋) 비소식**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다.

광주	흐리고 비	24~31℃
주요	흐리고 비	24~30℃
목포	흐리고 비	23~26℃
여수	흐리고 비	24~30℃
해운대	흐리고 비	24~29℃
남해	흐리고 비	24~30℃
진주	흐리고 비	24~30℃
부산	흐리고 비	23~27℃
대구	흐리고 비	22~28℃
대전	흐리고 비	24~30℃
전주	흐리고 비	24~31℃
울릉도	흐리고 비	24~30℃
독도	흐리고 비	23~30℃
제주	흐리고 비	2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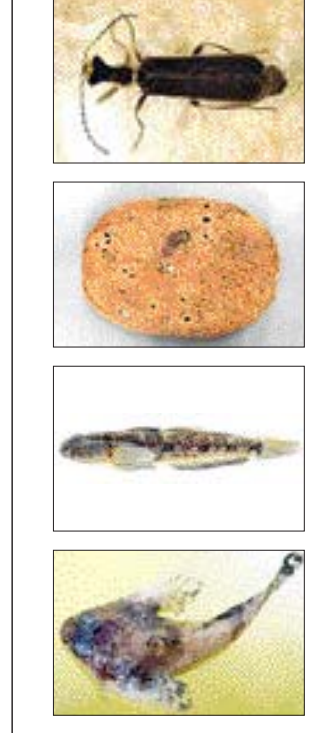
8월 8일 (음 6월 26일) ◇전국날씨

서울	1.0~2.0m
부산	2.0~3.0m
대구	1.5~2.5m
전주	2.0~3.0m
목포	08:58
여수	04:08

기상인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9(목)	10(금)	11(토)	12(일)	13(월)	14(화)
날씨						
최저/최고	24/31	26/33	25/31	24/30	24/31	25/33

## 신종생물 102종 국내서 무더기 발굴



환경부 ‘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사업단’은 지난 1년간 세계적으로 처음 보고되는 종(種)을 뜻하는 ‘신종’으로 추정되는 생물 102종을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사업단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신종 후보 102종과 다른 나라에서는 발견됐지만 국내에서는 처음 발견된 미기록종 499종을 찾아냈다.

신종 후보에는 척추동물과 고등식물 각각 2종, 무척추동물 49종, 곤충 41종, 하등생물 8종이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신종 후보 생물을 기준표본 생물을 보유한 외국으로 보내 비교토록 해 신종으로 최종 판정하는 데 3~5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사업단은 생표본 8만8천839점과 생체·조직·G-DNA 등 유전자원 300종, 3천여 점을 확보해 국립생물자원관에 보관했다.

사업단은 2014년까지 신종 및 미기록 종을 9천 종 이상 발굴하고, 생표본 123만 점 이상, 생물재료(생체, 조직) 3만1천 점 이상을 확보해 유전자은행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에서 조제되는 약의 25%가 식물로부터 추출된 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3천여 종의 항생제가 미생물에서 얻어지며 동양 전통 의학의 경우 5천 100여 종의 동·식물을 재료로 사용한 다. /연합뉴스

## S the 1 요리학원 **대특강 개강**

● 제2기 카빙(carving) 과일조각장식·스시조합(수강생모집) ●

맛과 멋이 살아있는 행복한 요리교실과 당신을 초대합니다

- 한국요리사자격증반(1년)
- 한국요리사자격증반(2년)
- 한국요리사자격증반(3년)
- 한국요리사자격증반(4년)
- 한국요리사자격증반(5년)
- 한국요리사자격증반(6년)
- 한국요리사자격증반(7년)
- 한국요리사자격증반(8년)
- 한국요리사자격증반(9년)
- 한국요리사자격증반(10년)

- 한국요리사자격증반(11년)
- 한국요리사자격증반(12년)
- 한국요리사자격증반(13년)
- 한국요리사자격증반(14년)
- 한국요리사자격증반(15년)
- 한국요리사자격증반(16년)
- 한국요리사자격증반(17년)
- 한국요리사자격증반(18년)
- 한국요리사자격증반(19년)
- 한국요리사자격증반(20년)

제2기 카빙(캐빙) 과일조각장식·스시조합(수강생모집)

(062) 385-0723-4

한일카 - 힐리호로!

**HANIL CRUISES**

한일카 힐리호

한일카 힐리호

한일카 힐리호

[주요일과선] 한일카 힐리호